

보육교사의 다문화 가정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ycare Teacher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중앙대학교 가족복지·주거환경학과
석사 임미선
교수 박정윤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and Housing Environment, Chung-Ang University

Master : Mi Seon Lim

Professor : Jung Yoon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aycare teachers' demographic variables and multicultural variables upon their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Daycare teachers' multicultural variables consist of their multicultural family-related education, their perception of single-races and multi-races persons, their acceptance of familial diversity, their cultural capability and the efficacy of multicultural teaching. In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multicultural variables seem to have an influence upon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ince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is important for the shaping of relations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between teachers and females of transnational marriage, the importance of teacher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related variables must be recognized. Therefor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help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mprove their adaptability to daycare facilities and for females of transnational marriage to form mutual, cooperative relations with teachers.

주제어(Key Words) : 보육교사(daycare teacher), 다문화(Multicultural), 다문화 가정(multicultural family)

Corresponding Author : Jung Yoon Park,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and Housing Environment,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31-670-4838 E-mail: pjy4838@cau.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I. 서론

현재 전 세계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의 빠른 발달로 인해 각 국가 간의 사이를 더욱 가까워지게 하였고,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국가 간의 상품과 금전의 이동에 이어 인구의 이동도 자연스럽게 유발시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취업을 하기위해 유입된 외국인들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게 되어 외국인 백만 명, 결혼이민자 십만 명 시대로서 세계화와 더불어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양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통계청 혼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1997년 총 결혼건수 중국제결혼의 구성 비율은 3.2%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9년에는 10.3%로 불과 10년 사이에 국제결혼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9). 또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2008년 대비 85.6%가 증가하여 107,689명에 이르렀다(행정안전부, 2009).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 중 만 6세 이하가 64,04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59.4%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9). 즉,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유아기 연령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61%에 달한다고 나타났다(김준화, 2009).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유아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절반 이상의 비율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유아들과 함께 이용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유아기는 다른 생애주기와는 다르게 급격한 신체변화와 더불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사회·심리·정서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다문화 가정 유아 역시 가정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짐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첫 사회 환경인 보육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첫 사회 환경인 보육시설은 아동기,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생애주기와 발달과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평생의 사회생활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아동발달에 미치는 보육관련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를 들고 있다. 이민경(2001)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 관련 변인 중 아동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교사라고 밝혔다. 결국 보육시설의 물리적인 변인보다는 교사의 질과 보육경험의 질과 같은 과정적 변인이 아동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에 있어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교사는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임을 시사한다. 특히 보육교사

의 교육신념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교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언어·인지·사회성 등의 전반적인 발달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부적응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 상황을 다루어야 할 태도나 기술을 보육교사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아영, 2006; 이영석, 2007). Banks와 Banks(2004)는 교사의 태도와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유아의 문화적 특징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교사들이 지녀야할 유용한 자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보육교사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가치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입증해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와 부모, 아이들 모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험의 부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소통의 곤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오성배, 2006; 정은희, 2004a). 이에 보육교사들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 가정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에 부모참여를 장려하고 가정과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한석실, 2007). 또한 많은 연구에서 교사의 올바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및 인식과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한 교사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김병순, 2007; 박미경, 2007; 한석실, 2007; 홍영숙, 2007). 그러므로 보육교사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의 밀접한 상호작용과 인간관계는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중요성을 밝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한다. 아울러 현재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다문화 가정에 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편견의 대상이 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며, 보육교사의 다문화 가정 인식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을 물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변인에 관한 경향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 실시 여부,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문화적 역량, 다문화 교수효능감)
- 연구문제 4. 관련 변인들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1)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 보육시설은 가정을 벗어나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기관이며, 이러한 환경은 긴장과 불안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히 낮은 상황이다.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되며, 낮은 상황과 타인들과의 만남은 이 시기의 영·유아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불안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출생 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다른 유아보다 보육시설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경, 2009; 유정님, 2009; 장은숙, 2008; 정은희, 2004b).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에 교사의 역할과 태도 및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의 어떠한 변인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을 위한 교사의 변인에 관해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김미화와 신혜은(2008)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의 하나로 다문화와 관

련된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닌 문화적 특징을 잘 조화시킬 때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력은 높아지게 되는데, Banks와 Banks(2004)는 교실에서 유아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조화시키는 교사의 태도와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교사들이 지녀야 할 자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질은 교사의 문화적 역량과 연관이 있는데, 교사의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교사의 상호작용 이들의 정체성 형성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냈다(윤갑정, 김미정, 2008).

마지막으로 교사-부모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에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자녀-교사라는 삼각관계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교사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그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문화 가정과 보육시설의 연계성 강화나, 교사-부모의 협력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첫 경험이 되는 보육시설에서 교사-부모의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시 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인 교사와 부모의 협력적인 관계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임은, 2009).

하지만 교사가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타났다. 임은(2009)은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대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는, 부모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정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부모가 교사와의 상담을 피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부족,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등을 꼽았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 교사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관계에서 나타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자료 공유 및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2. 보육교사의 다문화 가정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맞벌이 여성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보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육시설에 재원 하는 유아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보육 환경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안하여야 하며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특히 요보호 상황의 유아, 일반 가정의 유아, 다문화 가정과 같이 다양한 가족 상황에 있는 유아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욕구와 발달적·교육적 수준이 다양하므로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현경(2009)은 보육교사는 유아의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 변인으로서, 보육교사의 신념과 가치관은 다문화 가정 유아의 적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유아들은 타인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인종, 민족, 성, 사회적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접하게 되고 이것은 유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대부분의 문화적 이해와 자신의 문화와 타민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는 유아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가정과 타민족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유아기이다. 따라서 유아기에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Banks(2008)는 보육교사 자신이 인종이나 문화 차이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문화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다문화 교육에서의 보육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라고 하였으며, 이에 관해서 Saracho(1988)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보육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우정희, 박수미, 2009). 이는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신념이나 태도가 유아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며, 교사를 통해 아동들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편견이 아동에게 그대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육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삶의 질과 보육시설적 양상, 보육과 교육의 효과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보육교사의 관련 요인들에 대한 논의와 방향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보육교사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정들에 대한 인식과 교육현장에서 주는 영향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식과 실태조사는 미흡하지만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교육 실재에 대해 알아보고,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을 알아봄으로써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근무 하는 보육교사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 125명과 지도 경험이 없는 교사 125명씩 총 250명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 유아기이거나 이미 학령기에 접어들었으며, 하루에 절반 이상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유아에게 부모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육교사라고 보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0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편의표집에 의하여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회수된 38부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3월 30일부터 4월 21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국·공립과 사립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로서 눈덩이표집과 편의표집을 이용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로 총 250부의 설문지를 보육교사들에게 배부하여 22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9.6%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불분명한 자료 6부를 제외하고 총 21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반적 특성, 다문화 가정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문화적 역량, 다문화교수효능감이며 측정도구들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한 문항은 총 9문항으로 연령, 종교, 학력, 소속기관, 경력, 연수경험,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 경험, 다문화 가정 유아의

학부모 상담 경험, 학부모 상담 시 어려운 점,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 실시 여부가 포함되었다.

2) 다문화 가정 인식

다문화 가정 인식은 개인이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시각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는 지를 뜻하며, 보편적인 경험이며 동시에 사회·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른 다양한 경험이 각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어 형성된 것을 말한다.

다문화 가정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욱(2004)이 개발한 '가족에 대한 인식 척도' 중 '가족형태에 대한 가치관 인식 척도' 8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은 해체된 가정 또는 붕괴된 가족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인식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의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고 수용적인 것으로 의미한다. 총 8개의 문항 중 1,2,5,6,7번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다문화 가정 인식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59이었다.

3)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자가 단일민족과 다민족 중 어느 것을 선호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조사대상자가 단일민족과 다민족 중 어느 것을 더 수용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김갑석(2009)이 개발한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내용을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민족을 선호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총 4개의 문항 중 1,2,3번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57이었다.

4)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는 가족개념 중 형태적 가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성원들의 구성 및 관계를 가족의 범주로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가족 다양성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계숙과 유영주(2002)가 개발한 '가족 구성의 다양성 수용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가지 형태의 다양한 성원 및 관계에 대하여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한 후 그 수를 합산한 것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다양한 성원들의 구성 및 관계를 가족의 범주로 수용함을 의미한다.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42이었다.

5)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주류문화(dominant or mainstream culture)와는 차별성을 갖는 다른 소수집단의 문화를 가진 인구집단의 독특한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에 반응 할 수 있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민성혜, 이민영, 2009).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Cuevas(2002)가 개발한 문화적 인식 척도(Cultural Awareness Scale: CAS)를 민성혜와 이민영(2009)이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역량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차이, 자신과 타인의 가치/신념/편견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문화적 역량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42이었다.

6) 다문화교수효능감

다문화교수효능감은 교사가 다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교수 방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의 적합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다문화교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Guyton과 Wesche(2005)가 개발한 다문화적 효능감 척도(Multicultural Efficacy Scale : MES)를 김혜자(2009)가 유아교사와 한국정서에 맞게 수정 보완한 '다문화교수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Guyton과 Wesche는 다문화적 환경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다문화적 효능감(multicultural efficacy)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문화교수효능감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대해 5점으로 채점하여 합산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교수효능감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53이었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해 본 경험과 결혼이민자 여성과의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절반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지만,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참석과, 실제로 다문화 가정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에 집중해 있으며 종교는 절반이상이 기독교이며, 경력이 3년 미만인 특성이 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문항간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다문화 관련 변인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가정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교수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등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과 하위요인의 집단 간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변인에 관한 경향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별로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의 전반적인 인식은 허용적이며,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하(2010)는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고 있지만 아직도 인종이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일반인 보다는 많을 것으로 고려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30로 1~5점 범위에서 중간정도로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 역량의 평균은 3.43으로 1~5점 범위에서 중간 값보다 다소 높았지만 문화적 역량 수준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조사대상자가 소수집단문화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에 반응 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을 알아본 민성혜와 이민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족다양성 수용도의 경향성

변인	n(%)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	218(100)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사는 편모	216(99.1)
자신을 입양한 노모와 함께 사는 52세 중년의 여성	209(95.9)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과 함께 재혼한 부부	205(94.0)
입양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	210(96.3)
남편을 잃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	213(97.7)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세 명의 중년 자매들	187(85.8)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아들과 함께 사는 미혼여성	161(73.9)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사는 자녀가 없는 부부	128(58.7)
이혼한 남성과 사귀고 있는 여성과 키우고 있는 전 남편의 아이	137(62.8)
계부와 그가 동거하는 여성과 함께 사는 아이	145(66.5)
공동체 생활을 하는 6명의 성인과 12명의 아이들	69(31.7)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촌간의 두 남성	78(35.8)
레즈비언 커플과 함께 사는 그들의 아이들	94(43.1)
사별한 남편의 육촌 여동생과 한집에 사는 미망인	74(33.9)
2년전 교통사고로 함께 죽은 부부의 양가 부모들	127(58.3)
어릴 적 친구와 한 집에서 사는 77세의 할머니	50(22.9)
남편과 사별 후 애완견을 키우며 사는 할머니	41(18.8)
나와 단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나의 조상들	28(12.8)
연애만 하며 혼자 사는 독신남	17(7.8)

<표 1> 관련 변인의 경향성

변인	M	SD
다문화 가정 인식	4.01	.59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3.30	.79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11.95	3.78
문화적 역량	3.43	.43
다문화 교수효능감	3.78	.60

* 응답가능한 범위 : 0-1점, (총 20문항)

영(2009)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의 경향 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이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지만 대학생과 보육교사 모두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78점으로 1~5점 범위에서 중간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다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교수 방식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를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전체 비율은 <표 2>와 같았다. 다양성 수용도는 20가지의 가족유형 중 11가지 유형에서 60%이상의 응답자들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가지 유형에서는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었다. 가족으로 여기는 11가지의 유형은 양부모 가족(100%), 한부모 가족(99.1%), 입양 가족(95.9%), 재혼 가족(94.0%), 입양한 자녀와 사는 노부가족(96.3%), 조손 가족(97.7%), 자매

가족(85.8%), 미혼모 가족(73.9%), 기러기 가족(58.7%), 이혼 가족(62.8%), 동거 가족(66.5%)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각자의 평균, 표준편차,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Scheff' e를 사용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다문화가정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연령($F = 8.683, p < .001$), 학력($F = 2.726, p < .05$), 경력($F = 7.614, p < .001$), 다문화 가정 연수 참여 경험($F = 2.065, p < .05$)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소속기관,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 경험 유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부모상담 경험 유무는 다문화 가정인식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

변인	구분	n	M(SD)	F(t)값
연령	27세 이하	53	4.16(.31) ^a	8.683***
	28세-36세	61	4.21(.64) ^a	
	37세-42세	56	3.91(.66) ^{ab}	
	43세 이상	47	3.71(.55) ^b	
종교	기독교	136	4.06(.56)	1.154
	불교	8	3.69(.48)	
	천주교	12	3.80(.53)	
	무교	58	4.07(.61)	
	기타	4	2.87(.00)	
학력	전문대졸	75	3.89(.55) ^a	2.726*
	대졸	59	4.13(.65) ^a	
	대학원 재학 이상	33	3.88(.46) ^a	
소속기관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보육교사 과정 수료	48	4.10(.61) ^a	2.366
	국·공립 보육시설	35	3.99(.12)	
	법인 보육시설	26	4.29(1.00)	
	민간 보육시설	82	3.94(.58)	
	가정 보육시설	74	4.00(.52)	
경력	1년미만	22	4.07(.48) ^a	7.614***
	1년이상-3년미만	97	4.05(.46) ^a	
	3년이상-5년미만	55	4.19(.71) ^a	
	5년이상-7년이상	41	3.64(.62) ^b	
연수교육 참여 경험	없다	143	4.06(.37)	2.065*
	있다	75	3.91(.67)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 경험	없다	116	4.05(.51)	1.129
	있다	102	3.96(.67)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 경험	없다	111	4.04(.53)	.734
	있다	107	3.98(.64)	

* $p < .05$, *** $p < .001$

3.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1)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차이

변인	구분	n	M(SD)	F값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 실시 여부	통합교육실시	46	4.27(.41) ^a	2.857*
	하나의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74	4.06(.86) ^{ab}	
	부분적으로 실시	25	4.01(.60) ^{ab}	
	실시하지 않음	56	3.88(.42) ^b	

* $p < .05$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의 실시여부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2.857, p < .05$).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을 기본 교육과정과 다문화 배경의 유아교육을 연결시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집단이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의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차이

변수	구분	n	M(SD)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다민족 선호	70	4.30(.46) ^a
	중도적	75	3.96(.56) ^b
	단일민족 선호	73	3.79(.62) ^b
<i>F</i>		15.562***	

*** $p < .001$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5.562, p < .001$). 다민족을 선호할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가족 다양성 수용 정도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의 다양한 가족 수용도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성 수용 정도에 따라 낮은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가 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가족의 다양성 수용 정도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 차이

변수	구분	n	M(SD)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수용도 낮음	72	3.97(.57) ^{ab}
	수용도 보통	68	3.89(.57) ^a
	수용도 높음	78	4.16(.59) ^b
<i>F</i>		4.294	

* $p < .05$

다양한 가족 수용도가 보통인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가 높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 = 4.294, p < .05$).

4) 조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적 역량 평균을 통해 문화적 역량이 낮은 집단과 보통인 집단,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문화적 역량에 따른 다문화가정인식 차이

변수	구분	n	M(SD)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 낮음	77	3.96(.48) ^b
	문화적 역량 보통	75	3.85(.66) ^b
	문화적 역량 높음	66	4.25(.55) ^a
<i>F</i>		9.202***	

*** $p < .001$

문화적 역량의 수준이 낮거나, 보통인 집단과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 간의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화적 역량이 낮거나 보통인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개방적이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 = 9.202, p < .001$).

5) 조사대상자의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의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교수효능감의 평균을 이용해 효능감이 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따른 다문화가정인식 차이

변수	구분	n	M(SD)
다문화교수 효능감	효능감 낮음	70	3.81(.53) ^a
	효능감 보통	73	3.98(.59) ^a
	효능감 높음	75	4.23(.57) ^b
F			9.684***

*** $p < .001$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따라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9.684, p < .001$).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낮거나 보통인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문화적 편견의 민감성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혜자(2009)는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실제로 다문화와 관련한 교육을 더 자주 다루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효능감이 낮은 교사에 비해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더 많은 교육활동 방법과, 교수자료를 찾게 되고, 실제로 수업을 준비하면서 전문 서적과 매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며, 자료를 수집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을 존중하며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관련 변인들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변인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각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검증을 한 결과 계수가 1.758~1.813으로 잔차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관련 변인들이 연속 변인인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명목변수와 서열변수의 경우는 더미화를 통해서 회귀분석이 가능하도록 부호화하여 실시한 결과는 〈표 9〉, 〈표 10〉,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 I 단계에서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II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다문화 관련 변인을 각각 하나씩 투입하였고, III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변인 전체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만을 투입하였던 모델 I 은

〈표 9〉 일반적 특성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Model I
		β
일반적 특성	연령	-.387***
	종교	-.075
	학력	.151
	소속기관	-.144
	경력	-.185
	연수경험	.210*
	지도경험	.355*
	상담경험	.301*
	교육실시	-.059
Constant(상수)		5.272
R^2		.264
F		7.374

- 1) 종교: 0 = 종교없음, 1 = 종교있음
 - 2) 학력: 0 = 전문대졸이하, 1 = 대졸이상
 - 3) 소속기관: 0 = 민간, 1 = 국공립
 - 4) 경력: 0 = 5년미만, 1 = 5년이상
 - 5) 연수경험: 0 = 없음, 1 = 있음
 - 6) 지도경험: 0 = 없음, 1 = 있음
 - 7) 상담경험: 0 = 없음, 1 = 있음
 - 8) 교육실시: 0 = 실시안함, 1 = 실시함
- * $p < .05$, *** $p < .001$

〈표 9〉와 같다. 26.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beta = -.387, p < .001$),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경험($\beta = .355, p < .05$),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 경험($\beta = .301, p < .05$), 다문화 가정 관련 연수교육 경험($\beta = .210, p < .05$)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과 다문화 관련 변인을 각각 하나씩 투입하였던 모델 II는 〈표 10〉과 같다.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을 투입했을 때 설명력은 41.6%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적 역량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31.0%, 다문화교수 효능감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30.2%,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를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29.3%나타났다. 이는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을 투입했을 때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는데, 다민족을 선호할 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다민족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가정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변인이 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연령이 Model II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인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이며 타문화에 배타적이라는 통념이 작용하여 다문화 가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확히 연령이 다문화 가정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와 어학연수 등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

〈표 10〉 다문화 관련 변인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Model II			
		β	β	β	β
일반적 특성	연령	-.359***	-.350***	-.326	-.256**
	종교	-.102	-.092	-.072	-.052
	학력	-.056	.099	.085	.140
	소속기관	-.197	-.040	-.102	-.310**
	경력	-.032	-.195**	-.145	-.177*
	연수경험	.108	.225*	.151	.095
	지도경험	.468**	.424**	.401**	.251
	상담경험	.382**	.405**	.298*	.127
	교육실시	.057	.057	.011	.001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482***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197**		
문화적 역량				.244**	
다문화교수 효능감					.316**
Constant(상수)		4.272	4.802	3.977	3.688
R^2		.416	.293	.310	.302
F		13.125***	7.618***	8.276***	7.972***

- 1) 종교: 0 = 종교없음, 1 = 종교있음
 - 2) 학력: 0 = 전문대졸이하, 1 = 대졸이상
 - 3) 소속기관: 0 = 민간, 1 = 국공립
 - 4) 경력: 0 = 5년미만, 1 = 5년이상
 - 5) 연수경험: 0 = 없음, 1 = 있음
 - 6) 지도경험: 0 = 없음, 1 = 있음
 - 7) 상담경험: 0 = 없음, 1 = 있음
 - 8) 교육실시: 0 = 실시안함, 1 = 실시함
- * $p < .05$, ** $p < .01$, *** $p < .001$

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사 연수 교육을 실시할 때, 교사의 연령에 따라 교육내용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변인들이 모두 투입되었던 모델Ⅲ은 〈표 11〉과 같다. 모델 Ⅲ에서는 모델Ⅱ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단일민족과 다민족을 투입하였던 모델에 비해 설명력이 5%증가하여 46.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다문화 가정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도경험($\beta = .463, p < .01$), 단일민족과 다민족 인식($\beta = .373, p < .001$),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상담경험($\beta = .370, p < .01$), 연령($\beta = -.254, p < .01$), 가족 다양성 수용도($\beta = .193, p < .01$), 문화적 역량($\beta = .158, p < .05$)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도 경험이 많을수록, 학부모와의 상담 경험이 많을수록, 다민족을 선호할수록,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도하거나, 학부모를 상담해본 경험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경험과 상담경험 없음에도 다문화 가정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전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 가정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지닌 변인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해 본 경험이며,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경험도 높은 영향력을 지녔다. 이는 교사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교수효능감과 같은 교사의 신념과 관련한 변인 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접해보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변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하거나 학부모를 상담을 할 경우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보다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것 보다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인지하는 가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다민족으로 변모하며,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관련변인들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Model III
		β
일반적 특성	연령	-.254**
	종교	-.076
	학력	-.167
	소속기관	-.184
	경력	-.025
	연수경험	.037
	지도경험	.463**
	상담경험	.370**
	교육실시	-.020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373***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193**
문화적 역량		.158*
다문화교수 효능감		.063
Constant(상수)		4.272
R^2		.467
F		11.246***

- 1) 종교: 0 = 종교없음, 1 = 종교있음
 - 2) 학력: 0 = 전문대졸이하, 1 = 대졸이상
 - 3) 소속기관: 0 = 민간, 1 = 국공립
 - 4) 경력: 0 = 5년미만, 1 = 5년이상
 - 5) 연수경험: 0 = 없음, 1 = 있음
 - 6) 지도경험: 0 = 없음, 1 = 있음
 - 7) 상담경험: 0 = 없음, 1 = 있음
 - 8) 교육실시: 0 = 실시안함, 1 = 실시함
-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 관련 변인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관련 변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관련 변인들의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육교사들의 다문화 가정인식은 허용적이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중도적인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을 유지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대답한 문항의 점수가 높아 단일민족을 선호하는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것과,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단일민족에 대한 상충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조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을 알아본 결과 타민족의 문화를 가진 집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갑정과 김미정(2008)은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가정 자녀를 잘 지도하고,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문화적 역량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이 보통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육교사에 문화적 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변인의 충분히 탐색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또한 문화적 역량을 매개변수로 교사-부모 사이의 상호협력적인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교수 방식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를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를 알아본 결과 20개의 다른 형태의 가족 중 11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하지 못하는 가족의 특성은 가족 구성원이 혈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혼인을 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가정 인식에 집단 간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 학력, 경력, 다문화 가정 관련 연수교육 참여 경험 변인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다문화 가정 관련 연수교육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가족형태에 가치관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던(김동욱, 2004)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교사의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연구했던 임은(2009)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교사의 인간관계는 갈등을 극복하여 교사는 학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학부모는 교사를 전문인으로 인정하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사-부모 사이에 인간관계가 실현되며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신들만의 전략과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관련 연수 교육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연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단순히 교사-부모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결과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할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변인들에 따른 다문화 가정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을 기본 교육과정과 연결시켜 통합교육을 실시할수록, 다민족을 선호할수록,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변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생태체계론적인 시각으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이러한 변인의 영향으로 인해 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경로분석과 함께, 교사-부모 관계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체계적으로 밝혀내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며, 교사-부모의 관계가 원활히 형성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에 적응을 위해 개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변인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일

반적 특성만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 경험,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경험,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관련 변인들을 각각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다문화관련 변인 모두 상대적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관련 변인 중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또한 모델Ⅱ에서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경험,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경험의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다문화 관련 변인들도 다문화 가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타문화를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하거나,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상담하게 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다문화 가정 인식에도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변인들을 모두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 경험, 연령,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다문화 관련 변인들을 각각 투입했을 때, 다문화교수효능감의 설명력이 높았지만 모든 변인을 투입했을 경우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에 인식이 있어서 다문화와 관련한 교수방법과 능력보다는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의 여성과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다문화와 관련한 교수방법이나 활동자료의 개발 보다는 우선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지,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관련 변인들과 일반적 특성 중 연령, 다문화가정 지도경험,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경험이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변인들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다문화와 관련한 잠재된 변인들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단일민족을 유지하여 왔고,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타문화에 배타적인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된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다문화 가정 자녀, 교사-부모 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어 원활한 협력 관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교사와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와 원만

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을 위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서 연구자가 논의할 점은, 연구자가 다문화 가정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변인들을 유추하고 설정하였으나 영향력이 있는 모든 변인을 포함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체계별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실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교사의 인식이 중요하며, 또한 교사-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부모와에 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요인을 주는 요소를 밝히며, 교사와 결혼이민자 여성의 상호협력적인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밝혀 구체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지금까지 논의에 따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농어촌 및 다문화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반인을 대상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정 인식에 관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인식과 다문화 관련 변인들의 인식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다문화 가정 인식과 교육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인식의 대한 이해를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4가지로 제한하여 살펴보았지만 다문화 가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생태체계이론을 기반으로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 밝혀내는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관련 변인인 다문화 가정 관련 교육 실시 여

부,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다문화 가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유의한 결과를 보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보육정보센터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문화 가정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이 예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갑석(2009).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욱(2004). 유아교사의 가족인식과 가족교육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화, 신혜은(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학회지**, 29(2), 155-176.
- 김병순(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06). 초등교사의 다문화 인식 실태 조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화(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관련 변인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자(2009).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효능감 및 교육 실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성혜, 이민영(2009).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1(1), 183-206.
-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9).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http://www.mw.go.kr>에서 2010년 5월 21일 인출.
- 오성배(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 사회학 연구**, 16(4), 137-157.
- 우정희, 박수미(2009). 보육교사 관련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56, 69-91.
- 유계숙, 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79-94.
- 유정남(2009). 공립유치원 다문화 가정 유아의 교육실태 및 지원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갑정, 김미정(2008). 다문화시대 유아교사의 문화적 역량 개발 방향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55-85.
- 이민경(2001).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하(2010).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 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2007). 다문화시대 현장유아교육의 나아갈 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55-75.
- 임은(2009). 유아 교사와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의 인간관계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숙(2008).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경험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a).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b).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사용. **언어치료연구**, 13(3), 33-50.
- 통계청(2009).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통계자료. <http://www.kostat.go.kr>에서 2010년 4월 7일 인출.
- 한석실(2007). 다문화시대 유아교사교육의 방향 모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5-53.
- 행정안전부(2009). <http://www.mopas.go.kr>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ks, J. A., & Banks, C. A.(2004).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Banks, J.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Pearson: Allyn&Bacon.
- Cuevas, M. C.(2002).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s of social work student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Guyton, B., & Wesche.(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celopo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ticultural Perspective*, 7(4), 21-29.
- Saracho, O. N.(1988). "A study of the roles of early childhood teacher". *Early Child Deveipment and care*, 38, 43-44.

접 수 일 : 2011년 3월 15일

심사시작일 : 2011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6월 22일